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7 주사 (3:12~19)
(2016년 2월 7일~2016년 2월 13일)
(제4권 8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2 월 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여자, 그리고 뱀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12~13)

- (12 절)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הָאָדָ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제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הָאִשָּׁה אֲשֶׁר נָתַתָּה עִמָּדִי הִיא נָתְנָהּ-לִי מִן-הָעֵץ וְאָכַלְתִּי)
(13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הִים לְאִשָּׁ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한 것이냐? (מַה-זֹּאת עָשִׂיתִי)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הָאִשָּׁה)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הַנָּחַשׁ הִשְׂיֵאֵנִי וְאָכַלְתִּ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결국 뱀인가? 뱀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바뀐 것인가? 하나님과 아담, 여자와의 대화에서 결국 그 배후는 뱀이다. 뱀은 선악과를 먹도록 교묘한 동물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망친 원흉이 됐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면 그렇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뱀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 몇 마디의 말로 망쳐버렸으니 참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인간들이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협박성 경고 정도만 하신 걸까? 게다가 그 경고는 뱀의 한 마디로 순식간에 무력화 되어 버렸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는 뱀의 달콤한 속삭임을 쫓았다. 단지 인간이 연약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애초에 뱀의 꾀임에 허망하게 넘어갈 그런 무기력한 인간을 만드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탄 음모론이 등장한다. 사탄이 뱀을 조종했고, 뱀은 달콤한 말로 여자를 속였다고 말이다. 여지없이 속고 만다. 곁에 있던 아담도 뱀의 꾀임이 넘어가고 말았다. 인간들과 교체하시고 악이라곤 발도 붙일 수 없는 파라다이스를 설계한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탄의 음모로 인해 일어났다고 치자. 설령 사탄 음모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대개가 그 원인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춘기 아이가 비뿔어져도 사탄이 그렇게 한 거라 생각한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중병에 걸리는 것도, 정상적인 부부 사이를 파탄나게 하는 것도 모두가 사탄이 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자녀들과 배우자를 구해달라고 매달린다. 이처럼 세상의 온갖 퇴폐적인 문화는 사탄이 만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도 그 자녀가 사탄의 손에 이리 저리 휘둘리는 대로 하나님은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다. 물론 그 중에는 불치병이 낫거나, 자녀들이 극적으로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철야기도를 하고 40일 작정기도를 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암이 걸려 죽어가는 남편을 낫게 해 달라는 것이 정욕인가? 가출한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는 것이 부모의 욕심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탄보다 힘이 약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

뱀의 배후를 사탄으로 본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그분의 변치않는 속성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알면서도 침묵하시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적어도 우리가 좀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 봐야만 한다.

2010년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니뭐니해도 천안함 사건이다. 3월 26일 백령도 부근에서 훈련하던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해군 40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2010년 5월 20일 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바로 그해 지방 선거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지방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기도지사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출마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는 폭침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침몰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바로 이 창세기 사건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부분이 있어 간략하게 인용해 보고자 한다.

김문수 후보는 유시민 후보에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는 치욕이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우리 배가 침몰하고,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장성들이 나와 마치 무공을 세운 것처럼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전부 사표를 써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테러를 자행한 테러 분자 북한은 욱하지 않고 왜 테러를 막지 못했다고 정부만 욱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시민 후보는 ‘북한이 그럴 줄 몰랐는가?’라고 되받아쳤다.

하나님은 ‘정말 뱀이 그럴 줄 전혀 모르셨을까?’ 몰랐다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전지’라는 속성이 깨진다. 알았으면서도 이 엄청난 일을 막지 못했다면 ‘전능’에 흠이 간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해 낸 것이 ‘자유 의지’다. 그런데 자유 의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인간이 아닌 뱀에게 집중해 보자.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게 허용하셨는가? 뱀에게도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을까? 사탄이 뱀을 조종하고,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래저래 죄의 유입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장은 해석이 힘들다. 우리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든 그것은 무죄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억측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인간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알아낼 수가 없다. 질문은 계속하되 답은 유보해 놓는 것이 어떨까?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오직 그것만이 불변의 진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모든 나쁜 일을 사탄의 술수라고 돌리는 데는 어떤 심리적 기저가 작용하는 걸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나요? 하나님은 다아시면서도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뱀의 운명이 결정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4~15)

- (14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הִים אֶל-הַנָּחָשׁ)
 네가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כִּי עָשִׂיתָ זֹאת),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אָרַר אֶתָּה מִכָּל-הַבְּהֵמָה וּמִכָּל חַיַּת הַשָּׂדֶה)
 너는 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עַל-גֻּחַנְךָ תֵּלֵךְ וְעָפָר תֹּאכַל כָּל-יְמֵי חַיֶּיךָ)
- (15 절) 내가 너와 이 여자 사이에 원수를 놓을 것이다. (וְאִיבָה אֲשִׁית בֵּינֶךָ וּבֵין הָאִשָּׁה)
 그리고 네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וּבֵין וָרֵעָךָ וּבֵין וָרֵעֶיהָ)
 그(여자의 후손)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הוּא יִשׁוּפְךָ רֹאשׁ)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וְאַתָּה תִּשׁוּפְנֵנוּ עָקֵ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판단은 끝났다.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들과 뱀의 과오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아담은 배후로 여자를, 여자는 배후로 뱀을 지목했다. 거기서 끝이다. 하나님은 뱀에게 배후를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창세기 3 장 14 절~19 절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과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다. 우선 뱀에게 내린 저주에 대해 살펴 보자.

뱀은 여자를 피어서 선악과를 따 먹도록 한 일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된다. 먼저 뱀은 배로 다녀야 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배로 다니는 짐승을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포함하여 모든 배로 다니는 파충류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셨다(레 11:42 참조).

문제는 그다음이다. 뱀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흙만 먹어야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실제로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는다. 개구리나 쥐같은 동물들을 잡아 먹고 산다.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문자 그대로 흙만 파먹고 산다는 말일까? 혹시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עָפָר)다. 창세기 2 장과 3 장에서 ‘아파르’는 인간의 육적 원천을 의미함을 이미 살펴 보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코로 불어 넣어지기 전의 인간은 ‘아파르’로 뭉쳐진 존재였다. 그런데 뱀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파르’를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도대체 뱀이 남자의 원천인 ‘아파르’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 하늘의 존재 양식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땅에 속한 존재 즉, ‘아파르’로 뭉쳐진 존재를 육신이라 부른다. 성경에는 ‘살’로 번역했다. 살은 히브리어로 ‘바사르’(בָּשָׂר)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σάρξ)다. ‘바사르’이든 ‘사르크스’든 이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요즈음

이야 과학이 발달하여 생물학적으로 육체를 인식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사르’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의 재생산 도구이자, 생명의 원천을 담는 그릇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도구다.

우선 ‘바사르’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도구다. 아담의 뼈가 추출된 후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바사르’다. 그리고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향해 아담은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말했다. 여자의 뼈가 아담의 뼈고 여자의 살이 아담의 살이다. 창세기 2장 창조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한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에하드’(בָּסָר אֶחָד)다. 한 몸은 재생산을 의미한다. 후손을 낳는 도구다. 생명이 이어지는 원천이다. 하나님은 ‘바사르’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셨다.

그리고 ‘바사르’는 생명을 담는 도구다. 바사르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피에 두셨다. 그리고 그 피에 있는 생명으로 ‘육체’인 ‘바사르’를 지탱하도록 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3-6).

참고로 여기서 ‘바사르’는 고기로 번역되었다. 피는 ‘바사르’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담는 그릇인 바사르와 피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나님이 피에 생명을 넣어두시고 그것을 ‘바사르’에 담은 이유는 그 ‘바사르’가 단지 먼지인 ‘아파르’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게다. 만약 그 ‘아파르’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육체는 ‘바사르’가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

또한 바사르는 언약의 도구다. 할례는 바사르를 잘라냄으로 완성된다. 모든 언약은 바사르가 잘려나가거나 죽어야 한다. 바사르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10-1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바사르’는 먼지인 ‘아파르’가 생명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이 없는 ‘바사르’는 단지 흙이요 먼지에 불과하다. 뱀은 평생 그 아파르를 먹고 살도록 운명지어졌다. 인간은 아파르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이 죽어 아파르로 돌아가면 뱀은 그것을 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 인

간이 죽지 않으면 뱀은 살 수 없다. 뱀은 인간의 육신의 근본인 흙을 먹고 산다. 어찌면 우리들 모두의 마음 속에 뱀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바사르가 죽어 아파르가 되길 기다리면서 말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 말했다(갈 2:20). 우리의 '사르크스', '바사르'(육신)는 욕망, 열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 5:24). 이미 아파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먼지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 때문일게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을 방해한다. 지금이라도 아파르 즉, 먼지일랑 기꺼이 뱀에게 던져주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어떨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이 생명과 언약을 담고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당신은 자신의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깨달으셨나요? 우리는 언젠가는 흙의 몸을 벗고 영광스런 하늘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여자와 뱀 사이의 ‘에바’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4~15)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뱀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두 범인을 지목하라면 뱀과 여자다. 신약 성경에서는 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아담 또는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사실 뱀이 여자를 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둘은 공범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와 뱀은 쿵짝이 잘 맞았다. 특히나 여자는 아담보다도 뱀을 훨씬 더 신뢰한 것 같다. 오죽했으면 아담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한 말을 따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를 놓겠다고 말씀하신다. 둘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를 놓겠다고 했다. 히브리어로 원수는 ‘에바’(עֵבָרָא)다. ‘에바’는 원한 관계에 의해 생겨난 어떤 것을 말한다. 단순히 대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 그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적대 관계다. 하지만 원한 관계는 이와는 다르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 누구를 실제로 해치거나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가했을 경우 생겨나는 관계다. 그런데 여자와 뱀 사이의 ‘에바’는 철저하게 중립적이다. 누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둘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둘 모두가 해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에바’는 여성 명사다. 사실 ‘에바’를 원한에서 생겨난 ‘악감정’ 정도로 추상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에바’라는 단어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와 뱀 사이에 놓여지는 ‘에바’의 실체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여자와 뱀 사이뿐 아니라 그 후손들 사이에도 ‘에바’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둘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기까지 둘 사이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 순간이 세상은 뱀의 편과 여자의 편, 뱀의 후손 편과 여자의 후손 편으로 양분된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구분이 아니다. 힘과 권력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내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강요한다. 인간 편에서 보면 뱀의 주장은 늘 정의롭고 합리적이다.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종용할 때도 그랬다. 그래서 인간 눈에는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보인다.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 절을 원시 복음이라 주장한다. 이것이 만약 원시 복음이 확실하다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왜 예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한 거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참으로 집요했다. 어떻게 해서든 고소거리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자 예루살렘으로

부터 갈릴리까지 사람을 파견하기까지 했다(막 7:1 참조).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요 11:50).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짓지 못할 일이 생겼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 당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에바’인 원수를 청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엡 2:14-15).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는 다름아닌 율법이다. 뱀은 여자를 속여 선과 악을 알게 만들었다. 율법은 선과 악의 표준 교본과 같다. 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다(사 59:1~2 참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안식할 수 없다. 율법이 있는 한 자기 죄로 인해 늘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 그 율법은 인간을 늘 형벌의 그늘로 이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은 율법이고 형벌이다. 창세기 3장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한 광야를 헤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은 늘 그런 의미였다.

광야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를 향해 가려다가 에돔에 막혀 더 이상 가지 못하자 척박한 홍해 길로 돌아서 가야 했다. 이리저리 정처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백성들은 모압을 눈앞에 두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침내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화가 치밀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야 하나며 투덜댔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런 그들을 다독거리고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오히려 또 매를 든 것이다. 위로해 주시기는 커녕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이다. 불뱀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독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갑작스런 불뱀의 습격에 백성들은 끝내는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신다. 그 처방이 매우의 미심장하다. 뱀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높이 달아 올리라는 거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몸속의 독이 사라지고 회복되었다.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게 한 것도 뱀이고 결국 그것을 치료한 것도 뱀이다. 구원과 심판이 다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 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광야에서 뱀이 장대높이 달린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에 비유했다. 예수님이 뱀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했는데 그가 뱀의 위치에서 뱀으로 죽으신 거란다.

이율배반(二律背反)이란 말이 있다. 일찌기 철학자 헤겔은 이율배반을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등한 정당성 및 동등한 필연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명제’라고 정의했다. 대상은 하나인데 그 대상 안에 두개의 대립되는 개념이 동시에 들어 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개념성을 상실한다. 구원과 심판이 그렇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의미가 없다. 십자가가 그렇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심판이 떨어진 자리다. 동시에 그 심판은 인류의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죽으셨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심판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끝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우리가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움이 구원이다.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던 그 ‘에바’(원수)는 무엇일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간 율법이 그 에바이며,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사랑이 그 에바가 아닐까?

묵상을 위한 큐티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놓여진 원수는 무엇입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심판과 여자로 상징되는 구원 사이에 스스로를 놓으신 그분의 사랑을 당신은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던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나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고통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6)

(16 절)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אֵלֹהִים דַּבֵּר אֶל הָאִשָּׁה) 내가 네 고통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אֲדַבֵּר אֶת־עַצְבוֹנֶיךָ) 그리고 너의 임신의 수고속에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וְהָרְגָנְךָ בְּעֵצָב תֵּלְדִי בְנָיִם) 너는 네 남편을 향해 갈망하지만, (וְאָלֹא־אִישְׁךָ תִּשְׁקָוְתִי)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וְהוּא יִשְׁלֹט־עָלֶי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선악을 아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 두 가지 예언을 하신다. 하나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에 대한 갈망이다. 사실 하나님은 뱀에게 쓰신 '저주'라는 단어를 여자에게는 꺼내지 않았다. 아마 인간이 저주를 받아 뱀처럼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녀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르바아르베' (הַרְבָּה אֶרְבָּה)라는 말에는 '라바' (רבה)라는 동사가 두 번 연속 쓰였다. '라바'는 수나 양이 불어나는 것을 뜻한다. '라바'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늘 대상이 실제적이었다. 예를 들면 자손이 번성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추상적인 개념이 이 동사의 대상으로 쓰인 곳은 창세기 3장 16절이 유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한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통 분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산통이 심해질거라는 거다. 만약 이 구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하나님을 심술꾸러기 정도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여자들이 평생 동안 아이를 몇명이나 낳는다고 이런 걸 벌이라고 내렸는지 모르겠다.

여자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해산의 고통은 없어진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단지 해산까지 여자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의 번성이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축복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라바' (רבה)는 축복의 언어다. '라바'라는 축복의 언어가 '고통과 수고'를 의미하는 '이싸본' (עֲצָבוֹן)과 함께 쓰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다. 반대로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저주이고 고통이다. 창세기는 아들 낳는 문제를 너무도 많이 다루고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혼인했다. 사라는 원래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다. 만약 아이를 낳는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 맞다면 사라는 용케도 하나님의 벌을 피한 여자가 된다. 그럼 그게 축복이었는데? 사라의 평생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자를 향해 하신 그 말 즉, '하르바아르베' (הַרְבָּה אֶרְבָּה)라는 말을 그대로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 여인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성취된다. 바로 사라의 고통이다. 사라는 아들을 낳는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그의 나이 구십 세가 되어 경수가 끊기고 소망이 없을 즈음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가 이삭이다. 그녀는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다. 그는 피식 웃었다. 마음

의 비통함이 클수록 더 어이없고 허탈해져서 헛웃음이 나오는 법이다. 그녀는 아이를 많이 낳아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 고통스러웠다.

시어머니의 고통은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고향에서 데리고 온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아들없는 고통을 겪은 어머니를 둔 이삭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늦은 나이에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셨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태중에서 썩박질을 해댔다. 참다 못한 리브가는 하나님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쭙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뱃속에서부터 엇갈린 두 아들의 운명을 들어야 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엇갈린 운명을 다 아는 채로 살아야 하는 리브가의 고통은 어떠했겠는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떤가? 그의 고통은 어쩌면 3대에 걸친 여인 고통사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헬은 야곱의 둘째 아내다. 첫째는 그의 친언니 레아다. 원래 야곱이 짝짓은 여인은 라헬이었다. 야곱의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야곱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바람에 라헬은 둘째 부인이 됐다. 라헬은 레아보다 정확히 칠 일 후에 야곱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을 한 후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이유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도 낳았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이 낳는 고통보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고통이 레아를 괴롭혔다. 라헬은 정반대였다. 언니는 아들을 네명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야곱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을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 30:1). 라헬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는다. 그가 요셉이다. 이미 레아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까지 총 열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다. 요셉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요셉의 뜻은 더함이다. 쉽게 풀이하면 아들을 더 낳고 싶다는 말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친정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뻘엘에서 에브랏으로 향하던 길에 아들을 낳다가 산고 끝에 숨을 거둔다. 아들을 더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아들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아들이 12 번째 아들 베냐민이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브닌나와 한나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이다. 아들이 없는 것은 고통이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사무엘 상 1 장을 읽으면 너무도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왜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아들을 많이 낳아 육체적으로 느낀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하는 때에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고통을 더했다. 여자에게 있어 아들이 없음은 고통이고 저주였다. 게다가 하나님은 유독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더하셨다. 오늘 날 교회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을 낳기 위한 마음의 비통함을 안고 사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기까지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요? 또한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향한 갈망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6)

(16 절)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אֵל־הָאִשָּׁה אָמַר)
내가 네 고통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הַרְבַּה אֶת־גְּדוּלְתָּךְ עַצְבֹּנְךָ)
그리고 너의 임신의 비통 속에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וְהָרְבִיתְּ בְּעֶצְבֹּךָ בְּלֶדְתְּ מְלֵדִים)
너는 네 남편을 향해 갈망하지만, (וְאָל־אִישׁ־ךָ תִּשְׁקָוְתְּ)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וְהָוָא יִשְׁלֹטְ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여자를 향해 두 가지 예언을 하셨다. 하나는 아들을 낳는 고통이다. 다른 하나는 여자의 갈망함은 남편에게 있지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예언이다.

갈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자는 남편에게 무엇을 갈망할까? ‘갈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트슈와’ (תִּשְׁקָוְתָ)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세 번만 등장한다. 이 구절 외에 창세기 4장 7절과 아가서 7장 10절에 각각 쓰였다. 그게 전부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아가 7:10).

단 세 번 밖에 쓰이지 않은 이 단어는 해석상 논란이 많은 단어다. 많이 사용되었다면 각각의 용례를 찾아보아 뜻을 어렵잡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세 번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과 아가서 7장 10절은 확연히 다른 의미로 쓰였다. 아가서는 분명 성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아가서를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성적 갈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창세기에 3장과 4장에 연거푸 쓰인 이 단어가 과연 성적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세상에 악을 들여 온 죄를 여자에게 묻고 있다. 그런데 여자에게 고작 성적 욕망이나 주고 게다가 그것이 여자가 평생 짊어질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자가 남편을 향해 갖는 갈망은 어떤 갈망일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자. 창세기 4장 7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네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엮드려 있고, 그 죄의 갈망함(욕망)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개역개정은 “죄가 너를 원하나”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 죄의 갈망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τὴν ψυχὴν σου) (르에레카 트슈콰토)이다. 죄가 가인 안에 있어 그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어떤 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물론 가인에게 있던 그 죄의 갈망함은 동생을 죽이는 거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갈망함을 다스리라 했다. 물론 가인은 실패했다. 그런 건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그렇다면 남자를 향한 여자의 갈망을 무엇일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어렵잖게나마 이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예언이다. 남자를 향한 여자의 갈망은 끝내 실패한다.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그것이 결말이다. ‘다스리다’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살’ (מָשַׁל)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명하신 말도 ‘마살’이다. 두 경우 모두 ‘트슈콰’ (תְּשׁוּבָה)와 ‘마살’ (מָשַׁל)이 함께 쓰였다. 그렇다면 여자의 갈망은 여자가 지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를 구속사로 연결시켜 보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자가 여자를 구속하는 거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아버지 곁을 떠나 여자를 찾아 왔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방법으로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좀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좀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신랑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 그녀의 고집은 웬만해서는 꺾을 수 없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 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처럼 되면 자신의 힘으로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끝내는 좌절하고 만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 굴복당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그 힘은 매우 강해서 여자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부수고 그 안에 자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다. 십자가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부수는 도구다.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갈 5:24).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신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죄의 욕망을 지니고 사는 숙주가 되었다. 숙주가 죽지 않으면 결코 처리될 수 없는 욕망이라는 놈이 우리 속에 살고 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죽일 도리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숙주인 육신이 죽는 길 뿐이다. 그래야 그 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욕망을 죽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를 다스린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박히는 일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방식은 억압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계급으로 누른 것도 아니다. 힘없이, 아무런 저항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다. 힘이 아닌 사랑이다.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은혜요, 속박이 아닌 자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았나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 받은 땅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7~19)

(17 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דָם)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כִּי־שָׁמַעְתָּ לְקוֹל אִשְׁתְּךָ וַתֹּאכַל מִן־הָעֵץ אֲשֶׁר צִוִּיתִיךָ לֵאמֹר לֹא תֹאכַל מִמֶּנּוּ.)

너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וְאֶרֶץ הָאָדָמָה בְּעִבּוּרְךָ)

고통 속에서,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בְּעִצְבוֹן תֹּאכְלֶנָּה כָּל יְמֵי חַיֶּיךָ)

(18 절) 땅은 너를 향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할 것이다. (וְקוֹץ וְדַרְדַּר תַּצְמִיחַ לָךְ)

너는 들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וְאָכַלְתָּ אֶת־עֵשֶׂב הַשָּׂדֶה)

(19 절)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의 땀을 통해,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בְּזַעַת אַפֶּיךָ תֹּאכַל לֶחֶם עַד שׁוּבְךָ אֶל־הָאָדָמָה)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네가 나왔기 때문이고, (כִּי מִמֶּנָּה לָקַחְתָּ)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כִּי־עָפָר אַתָּה וְאֶל־עָפָר תָּשׁוּ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적시한 아담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것을 따 주었다. 아담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것을 덩석 받아 먹었다. 하나님의 경고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벌은 이렇다. 벌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이자 모든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인 셈이다.

아담으로 인해 애매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땅은 아담의 육신의 원천이고 (창 2:7), 그가 경작해야 할 대상이었다 (2:15). 그는 어찌피 땅을 갈아 삶을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그의 원천이자 경작의 대상인 땅을 저주하셨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함으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세 가지 운명을 말씀하신다. 첫째, 살아 있는 동안 고통 가운데 땅의 소산을 먹고, 둘째,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 땅을 지칭하는 단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레스’고 다른 하나는 ‘아다마’다. ‘아레스’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부터 협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코스모스의 물질 세계, 지구, 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다마’는 흙을 말한다. 아레스의 땅은 흙을 포함한 각종 암석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아다마는 오로지 흙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하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흙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 ‘아다마’ 즉, 그 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아다마’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담이 받은 벌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그 안에 담긴 구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벌 즉,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사망에 이르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아담을 향한 벌,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받은 벌은 수고와 애씀이다.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한다. 쉬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고와 애씀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하나님의 구속은 수고와 애씀과는 정반대다. 수고와 애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쉬를 주는 것이 구속이다. 예수님은 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후 바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다. 쉬를 얻는 것이 구원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삶에는 한 순간도 쉬이 없었다. 강제로 쉬는 안식일이 진정한 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애를 쓰는가? 땀을 흘리며 늘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때문이다.

인간이 땅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근원을 경작하는 행위이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농업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땅은 인간의 근원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죽어야 할 육신을 경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깨끗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애씀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고통이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갈고 닦는데 평생을 보내는 것이 열매없는 수고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욕망이라 말한다.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επιθυμία)라고 부른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탐심으로 번역했다. 정확히 말해 탐심이라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욕망과 열정을 말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열정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이다. 열정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 열정으로 자신의 육신을 갈고 닦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인간의 열정으로 만들어 낸 의로움, 거룩함은 늘 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 진다.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처진다 싶으면 이내 열등감에 빠진다. 시기와 질투심이 슬그머니 마음을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처럼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자신을 또 다시 갈고 닦는다. 한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서 완벽에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쓴다.

이같은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지만 실상은 율법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산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 정도의 문제를 놓고 일생을 씨름하며 보낸다. 어떻게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면 가차없이 상대방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남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그렇다 치자. 자신을 향한 칼날은 때론 그보다 더욱 가혹하다. 대표적인 것이 죄책감이다.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한다. 자식이 잘못 되어도 내 탓이다. 속썩이는 사춘기 아이를 바라보

며 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힘들어 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못난 점을 가리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성형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강남의 수많은 성형 외과들은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상술로 자신들의 잇속을 채워가고 있다.

이러한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차피 공수래공수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도 그러한 애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철저히 이론적이다. 실제의 삶에서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외모나 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해주신 운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아담 중의 하나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나요? 그런 노력이 자신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줍니까?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 속에서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먼지’로 돌아갈 ‘먼지’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7~1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먼지로 돌아갈 운명.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 심판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의 땀을 통해,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아담이 땅으로 돌아가야 하며, 얼굴의 땀을 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던 말인가? 물론 이는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신다. 아담이 ‘하아다마’(חָאָדָמָה) 즉, 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다. 만약 그 때문이라면 아담이라고 이름지어졌을 때부터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부터 흙으로부터 먼지를 취해서 만들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담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비록 아담을 먼지로 만들긴 했지만 그몸이 늙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선악과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재료가 무엇이든 그몸 그대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기치 못할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설마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다가 뜻밖에 뒤통수를 맞으신 것일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막을 능력이 충분함에도 애초에 이를 막으려는 의지가 없으셨다. 이 일을 예방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은 허락하셨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든 개입하지 않으시든 상관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장 뼈아픈 사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획없이 무턱대고 좌충우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먼지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셨으며, 그 때문에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운명으로 만드셨을까?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성경이 모두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 말씀하셨다(요 5:39 참조).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을 배우게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어쩌면 아담에 속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을 읽다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담이 먼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전 예정이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3~4).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을 창세 전에 택하셨을까? 이 말 속에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첫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능히 그러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미리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는 그 예정된 사람들을 때가 되어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이쯤되면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계획의 일환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감을 정해 놓으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만들어 먼지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도 이 원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먼지로 만든 육신 속에 사는 동안 택한 백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 물론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먼지로 만들어진 그 육신을 움직여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먼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그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다. 먼지인 인간은 먼지로 돌아가야 한다. 단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한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창세 전 예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생각해보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어떤 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어떤 거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배우는데 먼지만큼 적절한 소재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스스로가 너무도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은 축복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존재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축복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축복이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자신이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그 사실이 진정 축복으로 느껴지나요? 그런 먼지에 불과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